

4월, 광주만의 돌봄서비스 시작한다

광주시, 102억원 투입 질병·사고·노쇠·장애 '통합돌봄' 시행 경제적 형편 아닌 필요 정도 따라 결정...은둔 가구 의무방문

#혼자서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낮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어머니를 혼자 돌 수 없어 막막하네요.

#아내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둘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희 부부 대신 9살, 7살 아이를 돌봐 줄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식사 문제도 걱정입니다.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고, 혼자 일상 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돌봄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먼저 기존 돌봄 제도를 안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는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를 연계,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으로 즉시 지원한다.

플러스 돌봄은 취사·정소·수발 등 가사, 영양식 등 식사, 병원·관공서 등 동행,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 인공지능 안부 전화 등 안전,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 편의, 단기 보호 등 7개 분야에 걸쳐 지원된다.

특히 동행 지원은 병원 진료, 검사, 처방 약 구매

등까지 제공해 수요가 클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광주시민 절반가량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시·구·비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긴급 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는 전액 지원, 100% 초과자는 본인 부담이며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단일 창구인 돌봄 콜(1660-264)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된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 가구 등은 의무 방문으로 챙긴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5개 자치구도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서비스를 맡을 민간 전문기관은 다음 달까지 자치구 공모를 거쳐 선정된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 없는 돌봄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인건비 지원

최장 70일, 연말까지 읍·면·동서 접수...농업경영 안정 기대

전남도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 등으로 쉬는 기간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영농작업 대행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도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도민)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을 바라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출산 또는 출산 예

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을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예정 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1일 지원단가인 7만 6960원의 80%인 6만 15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돌보고 건강하게 산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 여성농업인 5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

'강동 전세'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

라고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인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 기절자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연합뉴스

강기정 시장 용연정수장 긴급점검 "보수·교체 필요시 즉각 시행"

정수지 통합 유출밸브 확인

외부전문가 참여 2차 일제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동구 용연정수장을 긴급점검했다.

강 시장은 현장에서 "(이번에 단수 사고가 난) 덕남정수장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밸브와 관망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며 "사업소의 자체 점검 외에 전문가를 포함한 2차 일제점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용연정수장 지하에 있는 정수지 유출밸브실 등을 점검하고 정수지 통합 유출밸브(전동 버터플라이밸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정수지 유출밸브실은 덕남정수장 사고 지점과 동일한 곳이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관계자는 "용연정수장 유출밸브는 연결된 관로가 2개 라인과 2개 밸브로 구성돼 있으며, 1개의 유출밸브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한 개의 밸브로 비상조치가 가능해 단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비상수단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물 부족 위기 속에서 시민의 염려가 크다. (상수도)관망이 4000여km, 밸브만 5만70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용역 등 일제 점검방안을 모색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오후 동구 용연정수장 지하에 위치한 정수 유출밸브실에서 바이패스 배관과 밸브 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수명에 관계없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즉각 시행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긴급점검 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과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일제점검 대책, 부품 교체 등 노후화 시설 대응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시·정기 점검 외에도 이번 에 문제가 된 송수관(관경 350~1500mm) 밸브 긴급점검에 들어갔으며, 송수관로 밸브는 덕남정수장 24개, 용연정수장 32개로 확인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친조부모상에만 경조휴가는 남성 중심적 차별"

인권위,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 지적

국인권위위원회는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경조휴가·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는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

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
하실분. 010-3605-5000

지분, 땅,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금례(320216-XXXXXX)
- 최후추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32-2
- 등록기준지 :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48번지

피상속인 망 김금례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년20호로 신청하여 2023년 2월 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마라하여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2월 15일

- 상속인 : 강성철(550507-XXXXXX)
광주 북구 북문대로169번길 20, 102동 1404호(운암동, 나산아파트)
- 신고기간 : 2023. 2. 15. ~ 2023. 4. 27.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강성철의 주소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9171
	• 광산 571-7658	• 오지 266-78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학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온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